

- 시설과 생산(1) -

그러나 국제 경쟁력이 극히 미약한 화학섬유공업계는 1967년 7월 25일을 기하여 정부가 단행한 수입제한 품목 체계(negative list system)로의 전환을 위시한 제반 여건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화학섬유공업협회’라는 공동광장에서 상호 협의와 협조의 태세를 강화하였으며 국제 경영단위체로의 시설확장과 기업 경영의 합리화 및 기술혁신 등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국내 화학섬유공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보호관세정책의 채택 등 여러 가지 좌표 설정에 집중

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화학섬유 제조 공업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스케일 메리트(scale merit)이 큰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스케일 메리트가 크다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물론 한계가 있지만) 생산가격이 낮아짐을 말한다. 이에 발맞추어 한일과 태광도 생산능력을 국제 경영단위(일산 30톤)로 키우기 위한 시설확장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1967년 한일과 태광이 3개월 사이로 7.5톤과 6톤의 아크릴 생산시설을 가동한 직후 양사는 이미 상당규모의 증설허가 신청을 내어놓고 있었다. 태광이 일산 26톤, 한일이 일산 25톤이었는데 한일은 1967년 1월 7.5톤의 시설준공과 함께 즉각적으로 25톤 증설작업에 착수, 외자도입에 따른 대 정부 교섭에 나섰다.

당시 대일 청구권 자금 규모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던 외자도입은 그렇게 손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한일은 외자도입 허가를 따낸데 이어 조기 증설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이에 반해 태광은 외자도입 허가를 받았으나, 한일의 저지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3년을 끌다가 끝내 26톤의 증설마저 여의치 못하였다.

당시 태광이 신청한 외자 도입액은 1천 4백 50만 달러에 달했으며 한일은 태광의 증설에 대해 2백50만 달러만 투입하면 일부 시설 보완으로 26톤의 증설을 이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관계 당국에 제출하여 파란을 일으켰다. 당시 한일의 주장은 ‘지나친 외자를 들여가면서까지 증설을 할 이유가 있는가. 한일의 경우 2백 50만 달러 정도면 충분히 일부 시설 보완으로 26톤분의 증설을 단행할 수 있으며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이 의견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한일은 1천 3백 60만 달러의 차관과 5억 5천만원의 내자를 도입하여 1968년 8월 일산 25톤의 아크릴 제조시설을 증설하여 국제 경영단위 이상인 일산 32.5톤의 공장으로 급성장하였고 아크릴섬유의 국내 자급을 높임은 물론 수출산업으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당시 태광은 26톤의 증설을 추진 중이었으며 한국합섬공업주식회사에서도 30톤의 신규공장 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다.

1968년말 생산실적은 1967년의 2배가 넘는 5,744톤 이었으며 1969년말 생산 실적은 1968년의 약 2배인 10,476톤으로 증가하였다.

1969년말 생산실적은 1967년의 2배가 넘는 5,744톤이었으며, 1969년말 생산 실적은 1968년의 약 2배인 10,476톤으로 증가하였다.

1969년도의 석유류 수출액 2억 6천만 달러 중 화학석유 제품이 61%를 상회하여 화학석유 공업의 육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업종의 성격상 독과점의 형태가 불가피하게 되어 수급상황과 수출계획을 감안하여, 산발적인 허가를 지양하고 집중적인 확대 육성시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

아크릴의 경우에는 한일과 태광이 독과점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한일과 태광양사의 시설 경쟁이 치열하였고 한일과 태광은 라이벌 관계를 넘어선 심각한 대립을 지속하였다.

그러던 중 석유공업시설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설치된 석유공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태광은 1970년 일산 9톤의 증설을 허가 받았다. 1970년 말 국내 아크릴석유의 생산능력은 일산 38.5톤이었는데 이것은 일본의 약 1/15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 화석 총생산에서 29.8%를 점한 아크릴석유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15,813톤을 기록하였고, 1969년말 1,240톤의 재고를 가지고 넘어온 이래 수출 수요의 호조에 힘입어 연말 재고는 시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567톤에 그쳐 재고율 30%의 기록을 세웠다. 1/4분기에 1,760톤대로 확대되던 재고가 2/4분기에 접어들면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생산에 활기를 불어 넣으면서 연말에는 최저 수준인 560톤대까지 축소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2. 육성기

1971년도 화석공업의 시설 동향은 수요를 대비한 소요시설의 확보라는 소극적인 면보다는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산체제의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일관되었는데, 이는 국제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양산체제의 확립을 통한 규모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 절대적인 요소로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1971년말의 시설규모는 1970년말의 일산 38.5톤에서 91% 증가한 일산 73.5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화학섬유 중 제일 높았다. 이는 태광의 1971년 5월 일산 9톤 증설과 한일의 1971년 9월 일산 26톤 증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사의 증설로 인하여 생산량은 전년대비 2,000톤 증가한 17,801톤이었으나, 연말 재고는 전년의 567톤에서 무려 171%가 증가한 1,541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해외시장에서의 스웨터 패턴의 변화로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1972년에는 시설의 증설은 없었으나 생산량은 24,255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급격히 늘어났던 해였다.

1973년 화섬공업은 세계적인 호황과 이에 따른 수출수요의 급증으로 시설은 일산, 1,000톤대 도달을 목표로 대증설 계획을 추진하여, 생산은 처음으로 연간 100,000톤대를, 수출은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75,000톤을 상회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과 확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비약적인 도약과 개발을 목표로하고 있는 업계의 꾸준한 노력과 정성이 담긴 땀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크릴 업계도 오랜 영원인 생산단위의 국제규모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설면에서 한일이 9월에 일산 15톤 증설하여 1973년 말 국내의 아크릴 생산능력은 일산 88.5톤으로 늘어나 전년대비 16.9%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생산량은 28,349톤을 기록하였다. 더구나 1973년 10월 중동전을 계기로 석유파동과 노골화된 국제 자원난 등으로 국내 섬유업계는 전반기의 호황을 무색케하는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기술, 수출면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경주한 해였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수출입국의 대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제 10회 수출의 날에 한일이 다닐 회사로서 최초로 1억달러를 달성하여 [1억불 수출의 탑] 상을 수상케 되어 수출산업에서의 화섬의 위치를 다시 한번 과시하였다.

1974년은 국내 화섬업계가 국제경기의 침체로 전반적으로 수출의 둔화 및 내수의 부진으로 크게 충격을 받은 한 해였다. 그러나 이 같은 수요의 퇴조 속에서도 80년대의 100억달러 수출 중 섬유제품의 수출이 전체의 1/4인 22억 달러이라는 막중한 쉐어(share)를 차지하도록 하려는 노력에 의해 화섬업계는 증설에 증설을 거듭한 한 해였다. 1973년 10월의 중동전 이후 산유국의 원유공급량 제한 조치와

원유공시가 인상으로 야기된 이른바 국제 석유파동과 자원 내셔널리즘은 74년에 들어와 새로운 국제경기 양상을 노출시켰다.

이 같은 일련의 국제 경기의 급변으로 각국 경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내외적으로 전례없는 심한 불황을 겪게 되었다. 더욱이 호황기인 73년부터 착공하기 시작한 화섬시설이 속속 완공되면서부터 심한 수급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여 재고는 날로 늘어났으며 업계는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어 부득이 자율적으로 조업단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아크릴 섬유유 경우 1974년 말 평균 가동률이 77%밖에 되지 않았다.

시설면에서 보면 태광이 74년 1월에 일산 15톤, 한일이 74년 6월에 일산 20톤, 8월에 일산 35톤을 증설하여 1973년말에 비해 1.8배 증가한 일산 158.5톤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시설을 대폭 증설한 것은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과 업계의 숙원인 국제규모의 달성으로 스케일 메리트에서 오는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계의 자주적인 노력이 상호작용한 결과였다. 이리하여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70% 증가한 47,511톤이었다.

1975년의 시설증설은 태광산업이 2월에 일산 30톤, 한일이 1월에 일산 35톤을 증설하여 생산능력은 일산 158.5톤에서 일산 223.5톤으로 증가하였다.

아크릴은 가동률이 좋아 2월에 기록한 93.7%의 가동률을 제외하고는 전부 100%의 가동률을 보였다. 생산면으로는 1974년의 47,511톤에 비해 무려 93%가량 증가한 91,966톤을 생산하여 1975년도 생산 계획량을 초과 달성하였다.

3. 성장기

1976년에는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시설 조정계획의 추가분으로 공고된 일산 52톤의 증설분을 한일과 태광이 각각 26톤씩 배정 받았다. 1976년의 생산실적을 보면 전년대비 평균증가율 21%에 못 미치는 11%의 생산증가를 보며 102,023톤 생산에 머물렀으나 재고는 오히려 16% 감소를 나타내어 비교적 안정한 성장을 지속한 해였다. 특기할만한 것은 단일품목으로는 처음으로 아크릴 스테이플 파이버

의 생산량이 100,000톤을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한일의 아크릴 생산시설이 일산 160톤을 넘어섰던 76년 말 전남방직(전방)이 미국 듀폰 측과 기술을 제휴하여 건식 아크릴 공장 건설을 목표로 하여 아크릴 업계로 진출하려고 함으로써 아크릴 업계에서는 아크릴 제조공법상의 문제로 건식, 습식 논쟁이 치열하였다.

한일과 태광의 아크릴 시설경쟁이 라이벌 업체 간의 끈질긴 싸움이었다면 한일과 전방과의 ‘건식, 습식 아크릴’ 논쟁은 치열한 한판승부였다.

건식과 습식 아크릴 논쟁은 쉽게 말해 아크릴 제조공법상의 문제로 한일의 습식 아크릴이 모든 공정을 물속에서 진행시키는데 반해 건식 아크릴은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법이라 볼 수 있다. 전방의 건식 아크릴 설치 주장은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건식 아크릴 공장건설에 따른 플랜트 수출을 제시한 것은 미국의 듀폰 측이었으며 전방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듀폰의 상표를 사용한 아크릴 시장 진출에 전폭적인 찬동을 나타내었다.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화섬사의 개척자인 듀폰이 아크릴섬유의 한국 진출을 계획했던 것은 이보다 좀더 오래전 일이었다. 듀폰은 일본을 거쳐 한국을 극동지역 섬유수출의 발판을 삼으려 하였으나 그 일이 뜻처럼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한 때 듀폰은 한미 합작으로 국내에 아크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70년대 초 구체적인 액션을 취했었다. 당시 상공부장관에게 듀폰 측은 합작공장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편지로 띄웠으며 국내 합작선은 현 대농측이었고 듀폰의 건설계획 규모는 일산 50톤이었다. 상공부는 이때 국내 여러가지 수급상황과 전방 등을 설명하고 듀폰의 입장을 묻는 다소 미온적인 답장을 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한일의 기민한 사업성은 완벽하였다. 듀폰의 담당 중역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한일은 이 중역과 접촉, 당시 계면활성제를 비롯한 화학계통의 공장건설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중역은 결국 아크릴공장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펼치지 못한 채 한일 측과의 상담을 끝내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과 듀폰과의 계면활성제 공장 건설은 잠깐 이야기되었을 뿐 그 후 백지화 되어버렸다. 결국 합작선과의 만남을

제어하기 위한 한일의 치밀한 액션이었음을 후일 섬유업계 인사들은 증언하고 있다.

또 한때 한국 모방에서 아크릴공장건설을 구체적으로 진행시켰으나 자금문제와 주주들 간의 이견 및 기존업체의 반발로 이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이 같은 경로를 거쳐 76년 말 한일 또 한차례 듀폰의 도전을 받게 된 것이었다. 국내 합작선인 전방은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했으며 한차례 시련을 겪었던 듀폰 측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한일의 저지벽을 뚫어보려 하였다. 전방의 주장은 건식 아크릴이 원가상 30%를 절감할 수 있어 국내 경제에도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행 독과점체제에 따른 가격상의 문제에도 원활히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한일 측은 건식 아크릴 제조공법이 국내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수급상 또 다른 아크릴업체가 생겨나면 심각한 공급과잉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맞섰다. 듀폰은 한일의 이 같은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 당시 주한 미 대사를 앞세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내의 건식 아크릴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그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당시 언론기관을 포함한 여론도 한일의 아크릴 독과점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규업체인 전방의 참여에 동조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일부 신문은 한일과 전방의 아크릴논쟁을 1면 머리기사로 다루었으며 수요업계인 일부 소모방업체들도 전방의 참여를 은근히 지지하였다.

당시 언론기관에서 이 문제를 직접 취재했던 K씨는 이 때 섬유업계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건식과 습식 아크릴 시설 설치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건식이 좋으나 습식이 좋으나 하는 문제보다 새로운 신규업체가 그것도 미국 굴지의 듀폰사를 업고 국내에 진출한다는데 대해 한일측으로선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 또 아크릴 수요업계나 섬유업계에서도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입장도 경제기획원이 비교적 전방의 입장을 지지한데 반해 상공부는 수급상 차질을 우려하여 한일 측을 다소 옹호함으로써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70년대를 지내오면서 거의 불황을 모르고 성장해 온 아크릴 분야에 전방은 듀폰을 업고 과감히 뛰어들려 한 것이었으며 한일 측은 불가피하게 이에 맞서야 할 입장이 섰던 것이다. 사실 아크릴이 그 동안 불황을 모르고 성장해 온 것은 아크릴 자체가 독과점상태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전방이 아크릴 시장에 건식 아크릴섬유를 밀고 들어왔었다면 그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찌하였든 1976년말부터 시작하여 1977년 주안까지 끝냈던 이 건식, 습식 아크릴 논쟁은 결국 전방의 합작 철회에 따라 한일의 승리로 끝났다.

이러한 업계사정에도 불구하고 1977년 9월에 한일이 일산 26톤의 증설을 하였으나 생산은 5%가 증가한 107,535톤 밖에 되지 않았고 출하는 3%의 증가에 그쳤다. 이것은 국산원료 가격과 수입원료 가격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수입원료 가격이 하락세이었음에도 수입가격 대비 39~77%나 비쌌던 국산원료 가격이 7월 1일부터 실시된 부가가치세 때문에 더욱 높아져 50~130%나 비싼 값으로 구입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량의 소폭증가에도 불구하고 1977년에 아크릴의 생산능력은 일산 249.5톤으로 화학섬유 중 최대규모(쉐어 27%)가 되었고 화섬사상 처음으로 월산 10,000톤을 초과하는 품목이 되었다.

1977년 말에 서구 여러 나라의 자국 섬유산업 보호 정책은 한국 섬유산업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한 미국은행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는가 하면 선진각국의 섬유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 섬유류 수출은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 증설은 물론이고 기존 공장의 단순한 증설까지도 억제해 나가겠다는 상공부의 발표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광은 1978년 2월 일산 26톤의 증설을 완료하였고, 한일은 1978년 10월 일산 22.5톤의 증설을 이룩하여 1978년 말 국내 아크릴 생산시설은 일산 298톤으로 신장하였다.

가동률 100%를 기록하면서 생산량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26,411톤이 된 반면 쉐어율은 26.9%로 약간 축소되었다. 생산량 증가율이 이같이 고율로 바뀐 원인은 세계적인 경기회복을 들 수 있겠으나 국내적으로는 1977년의 생산실적이 섬유 불경기와 한때 대두되었던 섬유산업 한계론으로 인해 화섬메이커들의 생산활동이 저조했었으나 1978년에는 호황이 됨에 따라 생산활동이 전년에 비해 활발하

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재고량을 보면 1977년 9월의 12,123톤으로부터 감소되기 시작하여 1977년 말에는 10,153톤이 되었으며, 1978년에는 생산량이 18,876톤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은 더욱 줄어 8,528톤이 되었다.

1979년은 제 2의 오일쇼크로 불리는 원유가 급등과 물가안정을 지향한 정부의 금융 긴축정책 실시 등으로 우리경제는 원가고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와 자금난을 겪었던 한 해였다. 특히 화섬업계는 수요침체가 표면화되어 재고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 수요부진 현상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입규제 및 가격 급등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저하로 인한 수출부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완충 기능을 가진 내수시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생산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태광이 1979년 8월 일산 22.5톤, 한일이 11월 일산 25톤의 증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생산량 증가율은 생산설비 증가분에 미치지 못하였다. 즉 16%(일산 47.5톤)의 설비 증가가 있었으나 생산량은 전년대비 4% 증가한 132,159톤 밖에 되지 않았다.

예년의 재고 상황을 보면 연초의 재고량이 2,3월에 약간 증가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양이 감소하거나 연초 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해 1979년에는 달이 갈수록 재고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연말로 갈수록 재고가 계속 늘어나 10%의 자체 감산에도 불구하고 1978년 말의 8,528톤에 비해 55% 늘어난 13,169톤의 재고를 나타내었다.

1980년의 아크릴 시설을 보면 한일합섬이 일산 237톤, 태광산업이 108.5톤으로 전체 일산 345.5톤의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나 1980년도 생산량은 139,436톤으로 생산량 증가율이 1979년 대비 생산설비 증가율에 못 미쳤다. 즉 일산 25톤의 증설분이 1월부터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전년대비 5% 증가에 그침으로써 설비 증가율 8%에 미달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생산이 부진했던 것은 수출이 다소 호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내수가 격감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연말재고를 보면 전년대비 37%나 증가한 18,007톤에 달해 적정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며 따라서 양등하는 원료가격, 유틸리티가격과 함께 자금

압박을 주게 되었다.

1981년의 경우 시설면에서는 일산 345.5톤으로 신규증설이 없었으나 생산량을 보면 153,847톤으로 전년대비 10.3%의 증가를 보여 화섬 총생산량의 23.8%를 점하였다. 재고 상황을 보면 전년비 23%가 증가한 22,149톤에 달해 적정 재고량을 넘어 섰는데 이는 1/4분기 중 홍콩을 통한 제 3국으로의 수출이 계약되어 생산을 많이 하였으나 2/4분기 들어 수출이 줄어들게 되어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그간 생산능력을 나타냄에 있어 공칭능력과 실생산 능력이 큰 차이를 보여왔던 바 1981년말부터는 전품목에 대한 시설의 현실화 작업을 완료하였는데 이에 따라 1981년도 아크릴 생산시설의 공칭 능력 345.5톤은 현실화 능력 439.0톤으로 나타내게 되었다.